

개성에서 크랭크인…꿈이 아니다

남과 북의 어린이들 이야기 담은 휴먼 영화 ‘숙제’ 개성촬영 계획 영화인 상호방문 구체적 논의도

4·27 남북 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가운데 영화계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당국은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와 공동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북 문화교류협력 특별전담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남북 문화교류를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 이와 함께 영화진흥위원회 역시 관련 조직을 구성해 영화 분야의 남북교류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비에 나서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 관계자는 8일 “남북 영화교류 특별위원회 혹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영화인의 상호방문 등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9월 열리는 북한 평양대축전과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 남북 영화인들

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영화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부산국제영화제는 2003년 ‘내고향’도 7편의 북한영화를 공식 상영하기도 했다. 또 2000년 11월 임권택 감독과 배우 문성근 등 남측 영화인들이 북한을 방문해 영화 교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바 있다.

북한 현지 촬영 등 제작 관련 협력 등도 접쳐지고 있다. 실제로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숙제와 관련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휴먼 장르 영화 ‘숙제’는 북한 개성지역 촬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숙제’의 한 관계자는 “이야기의 절반 정

도가 북측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다. 이와 관련해 최소 후반부 장면이라도 개성에서 촬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당국 협의와 허가 등 절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남북 영화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이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한반도 정세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영화계는 보고 있다. 총무로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영화 분야 역시 북측과 교류 및 협력의 범위와 추진 시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연예

13

2018년 5월 9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컷



고아라, ‘옥림이’ 소환

연기자 고아라가 여고생으로 돌아갔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 착용한 교복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정갈하게 정리한 헤어스타일과 교복의 큰 리본 장식은 실제 여고생 같다. 데뷔 초 그가 중학생으로 출연한 드라마 ‘반올림’을 떠올리게 한다. 팬들은 “진짜 10대 같다” “교복이 잘 어울린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고아라 #여고생 #옥림이도들꺾어

이 드라마

‘세일 클로버’

연기자 이효리의 실패작 ‘자연인’ 이효리였다면…

가수 이효리의 ‘스타 파워’는 여전하다. 제주에 사는 6년차 부부의 소소한 삶과 낮은 이방인들의 만남을 그린 ‘효리네 민박’ 두 번째 시즌도 성공을 거뒀다. 그 성공의 중심에 바로 이효리가 있다.

‘문화 아이콘’ ‘트렌드 세터’ 등 여러 수식으로 칭송받는 이효리도 속수무책인 장르가 있다. 바로 연기자. ‘효리 광풍’이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 처음으로 주연한 드라마는 그야말로 ‘쫄딱’ 망했다.

2005년 방송된 SBS 드라마 ‘세일클로버’는 이효리가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지만 한자리수 시청률과 조기종영은 그에게 굴욕을 안겼다. 드라마는 사고동치 오빠를 둔 보일러 공장 의 여공 강진아(이효리)가 고교 중퇴 학력과 전과자 낙인에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내용이다. 여기에 재벌2세가 온갖 역경을 헤쳐 나가는 그녀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전형적인 ‘캔디형’ 드라마다.

‘세일클로버’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효리의 연기력이었다. 이효리는 가수 활동에 희의를 느끼고 있을 무렵 연기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 뒀고, 이를 위해 무려 5달 동안 매주 5일, 하루 4~5시간씩 연기수업을 받았다. 공장 노동자 역할이라는 점에서 당시 이효리는 공장 주변을 배회하고, 공장 근처 술집에 들어가 주위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다. 매 회 ‘연기력 논란’에 휩싸여야 했다. 더욱이 화려한 삶을 사는 이효리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는 큰 괴리감을 줬다.

시간이 흘러 지금쯤 이효리가 다시 이 캐릭터에 도전한다면 어떨까. 어느덧 정상에서 내려와 ‘자연인’의 삶을 사는 그에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정연 기자

편집 | 심승수·김형조 기자

연예현장.jpg



손성아-DJ다큐 결혼 여성그룹 나인뮤지스 출신 손성아(29)가 20일 서울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DJ다큐(윤문수)와 결혼한다. 두 사람은 작년 5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손성아의 예비신랑 DJ다큐는 엠넷 ‘쇼미더머니’, ‘언프리티랩스타’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손성아는 결혼 후에는 DJ로 활동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스타제국

비트 제대로 탄 ‘DJ 효’

소녀시대 효연, 전국 클럽투어 진행 수준급 디제잉…프로듀싱 계획도

소녀시대 출신 효연이 ‘DJ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룹 활동 시절에도 솔로가수로 역량을 키워왔지만, 최근 새롭게 영역을 확장한 DJ 분야에서도 제몫을 해내고 있다.

지난달 중순 ‘DJ효’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싱글 ‘소버’를 발표한 효연은 현재 전국을 돌며 ‘클럽 투어’를 펼치고 있다. ‘소버’는 일렉트로닉 기타 연주가 돋보이는 곡으로, 클럽에서 곡을 소화하면서 디제잉 실력까지 마음껏 과시하고 있다.

현재 각종 SNS에서는 효연이 디제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인 인기다. ‘생각보다 잘 한다’는 댓글이 줄을 이으면서 관련 동영상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미국 빌보드는 “신스 사운드와 뒀는 듯한 비트에 힘을 실어주고, 효연의 비움과 밸런스를 이룬다. 댄서 효연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산뜻한 댄스 선율을 만들어 냈다”고 DJ로 변신한 효연을 조명하기도 했다.

효연은 여세를 모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EDM축제 ‘2018 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에도 참가한다. 아울러 효연은 다른 가수의 노래 프로듀

싱과 믹싱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효연 측 관계자는 “DJ로 새 출발한 만큼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연내 새 곡도 발표해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연의 ‘소버’는 8일 현재 차트 리투아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과테말라 등지의 아이튠즈 종합 싱글차트에서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효연 ▶

어른용 히어로물 ‘데드폴2’…“청불 걱정마”

‘데드폴2’가 또 수위 높은 이야기와 표현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고 ‘성인 히어로영화’로 관객을 찾아간다. 1편에 이어 ‘청불’ 히어로 시리즈로서의 고유한 개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층 높아진 인지도에 힘입어 새로운 흥행 기록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개봉하는 ‘데드폴2’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국내서 큰 흥행을 거두는 ‘어벤저스’, ‘캡틴 아메리카’, ‘토르’ 등 히어로 시리즈가 대부분 12세 관람가 등급인 사실을 감안하면 ‘데드폴2’의 지향점은 확실히 ‘어른용’이다.

‘데드폴2’가 청불 등급을 받은 이유는 “거친 대사”와 “폭력적인 장면” 때문이다.

영등위는 “근접 살상이나 헤드샷, 신체 훼손 등 폭력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다. 성을 언급하는 거친 대사도 여러 차례 등장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됐



1편에 이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데드폴2’.

사진제공 | 이십세기폭스코리아

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만으로도 ‘데드폴2’의 분위기가 그대로 짐작된다.

청불 등급은 관객 동원에 제약이 따르지 만 ‘데드폴2’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마블에 속한 히어로 가운데 데드폴은 막말과 성적인 농담을 일삼는 악동으

로 워낙 유명한데다, 2016년 개봉한 1편 역시 청불 등급을 받고도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1편은 개봉 첫 날 25만 관객을 동원, 당시 기준 역대 청불 영화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청불 히어로 영화라는 사실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물론 ‘막말하는 히어로’가 지닌 매력이 331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이번 2편은 1편의 성공을 잇는 동시에 더욱 확고해진 캐릭터로 관객을 다시 공략한다. 최근 내한한 주연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데드폴은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최악을 말하지만 그래도 자신감은 충분하다”며 “그런 캐릭터를 진정한 방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개봉까지 일주일의 남았지만 공개 날짜가 다가오면서 ‘데드폴2’의 예매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다른 영화보다 일찍 예매를 시작해 예매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시리즈를 향한 관객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다. 1000만 관객 동원을 앞둔 ‘어벤저스:인피니티 워’가 휩쓴 자리를 성인 히어로무비로 무장한 ‘데드폴2’가 차지할지 시선이 쏠린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